

윤회의 질곡에서 서성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소설 <카르마>의 주인공 '완'은 산골 오지 마을 민박집에서 가족이라는 굴레로 얽힌 자기 부모형제의 환생을 만난다. '몽당한 절구공이 같은 팔'을 가진 민박집 주인 박씨와 '머저리 같은' 박씨의 형 내외가 바로 그들이다.

박씨는 심한 관절염으로 땅을 기어 다니며 '축생 같은 생애를 살다간' 어머니를, 박씨의 형은 태생적 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출한 이복 딸 형의 모습을 닮아 있다.

박영한의 소설 '카르마'



# 윤회 질곡에 선 인간 군상

이야기는 우연히 강원도 산골의 오지 마을을 지나던 주인공이 자신도 모르는 어떤 이글림에 의해 박씨의 민박집에 머물게 되고,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모진 폭습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결방살이를 하면서 전개된다.

민박집에서 주인공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니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자신의 가족사를 되돌아본다. 마치 오래된 활동사진을 보는 것처럼 박씨 가족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살아나는 과거 속의 그날들. 주인공이 애써 외면하고, 극복하려 했던 가족들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

었다. 가족사를 통해 윤회 사상을 관통하고 있는 이 소설은 윤회를 모티프로 실상과 허상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것이 있기는 한지를 묻고 있다.

### 가족사의 굴레에서 찾은 인간 존재의 실상

### 과거·현재·미래 뒤섞인 삶, 시간의 의미는?

박씨의 형을 '거대한 짐승'으로 착각한 주인공은 그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알고 <선가귀감>의 한 구절을 떠올린다.

'우습구나 이 몸둥이/아홉 개의 구

몸둥이/아홉 새나고 더럽고 하찮은 것/담내고 아귀 게 아니로다'

인간이란, 아홉 개의 구멍에서 오물을 흘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꿰뚫은 서산대사의 가르침은 주인공 '완'에게만 아니라 읽는 이에게로 전이된다. 주인공이 바라본 박씨의 형은 어쩌면 우리의 실상이며, 그것

을 바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인공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

두 달여간 민박집에 머물던 주인공이 사라진 박씨의 형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려 떠나려 할 때 박씨의 반응은 소설의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박씨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주인공에 대한 원망은 마치 주인공의 죽은 어머니와 형이 자신에게 퍼붓는 것처럼 들린다. 어머니에게 형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자 했던 주인공에 대한 원망이 박씨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공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에게 짐에도 많은 법이라며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릴 정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끝물이라 끝을 수 없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를 시도한다. 그것은 바로 윤회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입자 없는 무덤이 어디 있으며, 전생 없는 현재가 어디 있겠소' 라면서.

몇 달 후 가족과 함께 다시 찾아온 민박집에서 주인공은 또 다른 환생을 본다. 밥의 얼굴에서 죽은 어머니와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다. 전생 같기도 하고 내세 같기도 한 윤회의 흔적들. 소설 속 주인공이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졌던 것처럼, 과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전생인가, 현생인가, 내생인가? <이름 7천8백원>

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 '카르마' 작가 박영한 씨 인터뷰

소설 <카르마>의 작가 박영한 씨는 '근래에 와서 인간 본성의 문제 뿐 아니라 내가 매일 만나고, 나와 같은 이 시공간에서 살고 있는 생명있고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불교를 신앙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카르마>도 불교 소설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의 삶은 구차한 대담 따위를 떠나 이미 '불교적'이다. 집 앞의 뜰에 피어난 작은 꽃과 이를 모를 뜰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도 그러한 그의 변화된 삶의 한 모습이다.

이번 소설 또한 그러한 주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소설의 무대인 산골 오지마을과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군상의 모습은 지난해 그가 경험한 것들을

### 불교사상은 내 소설의 '아우라' 타인의 삶에서 나의 흔적 찾아

토대로 소설로 일구어낸 것이다. 그리고 인간군상과 순간순간 오버랩 되는 주인공의 가족사도 그 자신의 가족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타인의 삶에서 자신의 지난 삶과 현재의 삶을 읽어내는 작가의 통찰력은 소설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곧 불교의 인연법, 업보·윤회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

다음 작품도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작품 자체가 직접적으로 불교적 소재나 주제를 담은 것이 아닐지 몰라도 마치 '아우라(aura)' 물체에서 발산하는 기운, 주위를 감싸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나 '그림자'처럼 앞으로 나의 소설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말한다. "현재의 내 삶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는 거리가 멀지만, 만약 그것이 운명적으로 다가온다면 결코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이은자 기자

# '인간 = 지구의 주인' 생각 버려야



이영경 교수  
 동국대 조경학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 길가메시는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원시림의 삼나무를 베어낸다.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지은 사람들은 삼림 파괴의 결과를 신의 저주라는 형식으로 예언했다. "그대들이 먹을 양식을 불어 먹음지어다. 그대들이 마실 물을 불이 삼킨지어다." 길가메시는 소원대로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겼으며 신의 저주대로 숲의 고갈은 토사점적과 토양내 염분침전 등을 유발시키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쇠락으로 이어졌다. <숲의 서사시>는 이러한 숲의 파괴와 문명의 쇠망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인 존 윌런에 의하면 모든 문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울창한 숲이었다. 숲에서 베어낸 나무가 제공하는 온갖 중요요소로 문명이 시작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나무의 벌채가 가속화되면서 숲의 고갈과 문명의 쇠락이 나타난다.

저자는 청동기 시대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거의 모든 사회에서 일차적인 연료이자 건축 자재였던 나무가 인류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메소포타미아에서, 크레타, 그리스, 로마, 영국, 미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사료에 따르면 숲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남벌과 파괴로 일관하고 있다. 모든 문명에서 산림은 왕궁과 신전, 그리고 고급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재로 이용되었으며, 석회와 도기를 굽고, 청동·구리·철을 제련하기 위한 연료로 대규모의 나무가

벌채되었다. 해상 교역이 활발하던 시기에 나무는 상선뿐만 아니라 해군의 군함을 만들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 자재였기 때문에 나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아테네와 헬로폰네소스 동맹,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도 삼림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쟁이었다.

풍성한 숲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나무부족은 자연스럽게 사회나 국가의 쇠락과 직결된다. 숲이 파괴되면 생활의 편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고 강이 범람하며 토양과 토양내 영양소가 유실되면서 농산물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될 수 없

다. 따라서 숲이 울창한 다른 지역에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데, 메소포타미아와 나무 교역을 했던 크레타나 그리스 숲의 고갈을 통해 부상한 마케도니아, 그리고 영국의 나무 부족을 보충하던 미국 등은 울창한 숲 때문에 새로운 문명의 주역이 된 나라들이다.

숲의 고갈은 인류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는데, 주로 재활용과 건축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 청동 제련에 필요한 나무가 부족되면서 사람들은 청동기 파편을 재활용했으며, 구리슬래에서 철을 제거하면서 철기시대를 여는 기회를 마련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철 제련에 필요한 철나무가 부족할 때 석탄이용에 대한 기술이 발전

되었으며 이러한 발전은 화석연료시대로의 변화를 초래했다. 주요 건축자재로 이용된 나무가 부족하게 되면서 태양열을 이용한 건축설계에 대한 관심이 유발되었으며, 남쪽사면을 이용한 건축 시공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었다. 저자가 숲과 인간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 회상하는 것은 숲과의 공생관계를 생각된다. 숲과의 건전한 공생은 일방적인 파괴가 아닌, 보다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

나야 하며, 그러한 행동의 첫걸음은 인간이 지구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환

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이 숲을 파괴한 것에 대한 결과를 그리스의 서사시 <카르마>에 서는 '제우스는 지구를 구하는 길은 이 땅에서 인간들을 없애는 것이라 결론짓고 트로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죽음으로 세상을 비워지도록 했으며, 이로써 지구는 회복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책을 읽다보면 우리가 고대와 현대의 나라들이 숲을 대략없이 파괴했을 때 맞이한 결과에서 배우지 않는다면 이 서사시는 미래의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방대한 자료를 제시한 까닭에 쉽게 읽혀지는 일으나, 숲과 문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외에 세계 문명사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는 재미도 적지 않은 책이다.

### 숲의 서사시



### 숲과 인간의 공생만이 살 길

### 세계문명사 다시 공부하는 재미도

<숲의 서사시>는 나무가 우리 사회의 문화, 인구학적 특성, 경제, 정치, 외교 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통찰하고, 역사속에서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를 읽어내는 책이다. 환경운동가이자 저술가인 존 윌런이 13년 전 쓴 것으로, 미국 노턴 출판사에서 출간될 당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금도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 계속 찍어내 환경학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다. <도서출판 따님 7월, 2인원>

#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까요?"

한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엔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 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제품 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성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 1. 안경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진하스님(준보유자/서울 금강선원 교수)  
 (1) 대령/관육  
 (2) 지장청  
 (3) 전시식  
 (4) 산신이운/살보통청  
 (5) 범패작법부 따라하기(실습용)

-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해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1) 대령/관육  
 (2) 상주전공 지장불공의식  
 (3) 상용영반/산중작법 의식  
 (4) 교제

###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 (1) 순선법문 1, 2
- (2) 서울길상사 천도제
- (3) 철원심원사 보살계
- (4) 변산실상사 천도제

구입처: 다원미디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 외환은행 284-18-002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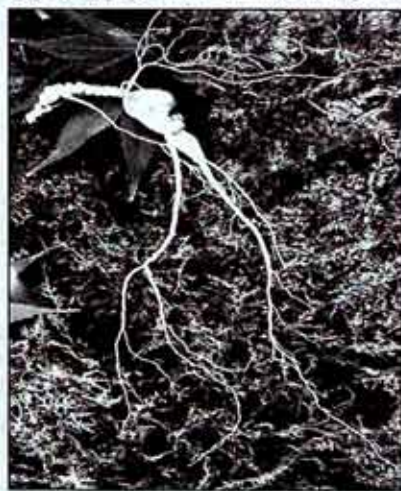
\* 초파일, 사찰행사 등에 이미 녹음된 TAPE나 촬영된 비디오를 선영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범성협장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골준비해 자천 수혈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향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산삼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 증후,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이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초추진,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정액을 조금만 먹어도 주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존경하는 스님, 오늘날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奉行하시는 스님, 기차신 몸과 氣力은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고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에게 報恩에 마음으로 敬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賜函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서울 (02) 713-7798, 701-4716

-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